

환율 고공행진에 출렁이는 물가 ‘경고등’

한은, 물가상승률 2%대 초중반 전망 언급

석유·서비스가격 들쭉...이상기후 등 변수

원·달러 환율이 내년까지 고공행진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에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환율이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이 지난달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1%인 점을 고려하면, 환율 수준에 따라 기존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지난 9월 2.1%에서 10월과 11월 연달아 2.4%

로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

한은은 물가 상승 폭 확대 배경과 관련, 긴 추석 연휴를 전후한 여행 수요 증가로 개인 서비스 가격이 일시 급등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0.1%p, 기상 악화 등 기타 요인이 0.2%p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품목별 물가를 나눠 보면 11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모두 5%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수산물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겠지만, 농산물은 출하 확대와 정부 물가 대책, 축산물에는 돼지고기 등 공급 확대와 연말 할인 행사 등으로 점차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축산물은 수입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도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석유류의 경우 최근 환율과 국제 정제마진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만, 최근 유가 하락으로 제철 가격 중 원재료 비중이 줄어 석유류 가격의 환율 민감도도 다소 낮아졌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한은은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만 않는다면 석유류 가격이 이달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내년 초부터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말 급등했던 환율과 국제유가의 영향 등으로 이달부터 기

저효과가 나타나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농축수산물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각각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 1분기 중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고 겨울철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를 기타 변수로 꼽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환율, 달러 강세에 1479.8원…8개월 만에 최고

장중 1482.3원까지 상승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해 1480원 턱밑에서 마감했다. 장중엔 1480원 선을 넘어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했으나, 오전 11시께 상승세로 전환했다.

오전 11시8분께 1482.3원까지 뛰어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한동안 1480원 선을 웃돌며 횡보했다.

종가 역시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였다.

환율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추중했으나,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이지는 않았다.

이날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은 달러 강세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전 10시



23분께 98.172에서 오후 3시40분 98.470으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강달러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952.74원으로, 전날 같은 시각 기준가(953.30원)보다 0.56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65엔 오른 155.36엔이다.

연합뉴스

광주도공, 서림마을 행복주택 입주자 선착순 모집

16형 16세대…29~31일 접수

광주도시공사는 17일 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광주 북구 소재 서림마을 다사로 읍 행복주택 16형 16세대와 주거약자형 1세대의 입주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8월 모집한 서림마을 행복주택 16형의 예비입주자가 미달됨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배제하는 등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전망이다.

선정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고,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선착순 등·후수 지정 후 보충금의 20%를 납부해 가계약 체결하고, 주택소유 여부 등의 자격검증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주택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cc.co.kr) 임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콜센터(062-225-2280), 서림마을 관리사무소(062-464-0561)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양동민 기자 yang00@

(주)해양에너지, ESG경영 강화 ‘은 힘’

안전관리 주요 활동 등 논의

(주)해양에너지는 최근 지속가능한 ESG경영 강화를 위해 제18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ESG위원회에서는 올해 회사 주요 뉴스를 비롯해 ESG경영 추진 실적 및 계획, 안전관리 주요 활동, 회사 발전방향 제안 및 자유 토론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해양에너지는 올해 회사 내 주요 뉴스와 대외 활동을 공유하며 친환경 가치 추구, 지역사회 상생, 안전·윤리경영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ESG경영 성과를 점검했다. 또 분야별 ESG 추진 실적을 돌



아보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향후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어 안전전문화 확산, 비상대응 능력 강화,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대용 기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는 17일 전남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제62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전남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전남 수출기업 40개사 ‘수출의 탑’ 영예

HD현대삼호 40억불탑 등…전남수출상 대상은 (주)바다명가

HD현대삼호와 대한조선 주식회사 등 전남지역 40개 기업이 ‘수출의 탑’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는 17일 전남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제62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전남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지역 경제를 이끄는 수출기업과 무역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출 진흥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겸 기획조정실장, 조성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회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지역 무역인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40개 기업에 대한 수출의

탑 시상과 수출 유공자 11명, 전남 수출상 수상 기업 15개사 및 유공자 15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수출의 탑 최고 영예인 40억불탑은 HD현대삼호(조선업)가 차지했다.

9억불탑은 대한조선 주식회사(조선업), 2억불탑은 광양알루미늄주식회사, 1억불탑은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식회사에게 돌아갔다.

2000만불탑에는 주식회사 피제이엔에스(PJ ENS CO.,Ltd), 선일물산㈜, 해송식품 유휴회사가 선정됐으며, 1000만불탑은 주식회사 해농,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슬, 주식회사 상영비엔에프, 포스코필라리티를술루션 주식회사, 조선내화 주식회사, ㈜제오빌드, ㈜유일이 각각 수상했다.

700만불탑은 주식회사 디에스무역, 500만불탑은 (유)성문, ㈜해신, 주식회사 스마일프레쉬, 형제수산 영어조합법인, 주식회사 바다명가, 주식회사 창대에 프앤비(F&B), 맛나푸드 주식회사, ㈜승산택, ㈜라벨라, 주식회사 온세계가 이름을 올렸다.

300만불탑에는 ㈜아이비에스에프에이, 주식회사 세원이엔에스, ㈜디엑스엠, 보해양조㈜, 대륙식품㈜, 200만불탑에는 주식회사 디엠티, 하서산업㈜, 완도맘영어조합법인, 주식회사 예지가 선정됐다.

100만불탑은 해미원 영어조합법인, 오성수산, 주식회사 신안씨푸드, ㈜흥일식품, 바다소풍영어조합법인, 다도해물산에게 돌아갔다.

유공자 포상은 모두 11명이다.

HD현대삼호 양정원 팀장이 동양산업 훈장을, 같은 회사 김상진 책임매니저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은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 김종남 대표이사, 주식회사 삼영비엔에프 이선웅 대표이사, 하서산업㈜ 김상국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지순 차장, 동명산업㈜ 성기진 대표이사에 수여됐다.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은 전남도 이주현 주무관, 하서산업㈜ 김창호 부장, ㈜흥일식품 추호정 이사, 오성수산 오재성 대표가 받았다.

전남수출상 대상은 ㈜바다명가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해신과 ㈜상영비엔에프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 15명에게 장려상과 근로자 표창이 전달됐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전남 기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기록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단독주택 공시가 광주 1.50%·전남 0.63%↑

3년 연속 상승…전국 평균상승률 2.51%

내년 광주와 전남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50%, 0.63% 상승한다. 다만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광주가 1.50%, 전남이 0.63% 각각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51%로 광주와 전남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광주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4년 0.79%, 2025년 1.51%, 2026년 1.50%로 2023년 -3.47% 하락 이후 3년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남도 2023년 -2.98% 하락 이후 2024년 0.17%, 2025년 1.39%, 2026년 0.63%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유지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은 광주가 1억4116만원, 전남은 446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표준지 공시지기도 광주·전남 모두 상승했다. 내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기는 광주가 1.68%, 전남이 0.31%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3.35%로 이 역시 광주와 전남 모두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다.

연도별로 보면 광주의 표준지 공시지기는 2024년 1.16%, 2025년 1.44%,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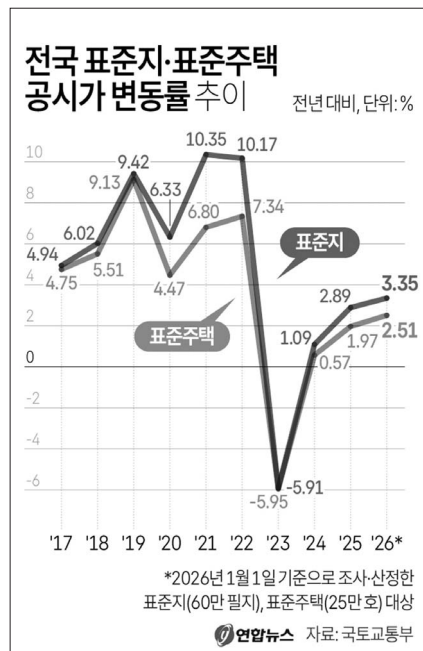
년 1.68%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남은 2024년 0.36% 상승, 2025년 1.32%, 2026년 0.31%로 오름세를 이어가다 올해 상승 폭이 둔화됐다.

내년 기준 표준지 평균 공시지기는 광주가 ㎡당 31만2549원, 전남은 2만6832원으로 지역 간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기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